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미소 짓는 간호사>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실천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웃는 표정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대외 공연을 나가는 난타 동아리에 참가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친구들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고, 연습이 부족하면 따로 마련된 연습실에서 추가로 연습하며 서로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연 중 제일 앞줄에 앉아계셨던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신나게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에 있어 가장 기본은 웃는 얼굴이라 생각하여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자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실습 중에도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환자분을 뵈러 갈 때, 먼저 밝은 얼굴로 다가가 인사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환자분께서 “학생이 이리 밝게 인사해 주니 아파도 기분은 좋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사한 후에도 스스로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성격 및 장단점

<파이팅을 외치는 간호사>

평소 행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으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습 중 한 환자분께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용기를 전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술에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병실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환자분에게 다가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되는 부분들을 저에게 다 털어놓으셔도 된다고 말을 하였고, 그 결과 환자분께서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은 훨씬 편안하네. 고마워”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에 함께 파이팅을 외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으로 입사 후에도 환자분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달하며,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부담을 떠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일에도,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리더십을 기르고자 학급 반대표 선출에 자원하여 한 학기 대표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표 업무를 하면서 처음은 서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여러 학급 친구들의 도움과 스스로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방법으로, 자연스레 학급 친구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여 중인 봉사활동에서도 관리 업무를 맡으며, 리더십을 기르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활동 및 사회경험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삶>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어머니께서 교환수혈로 인한 혈액이 부족하여 수혈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헌혈을 선뜻하겠다고 나섰고, 생애 처음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친구 어머니께서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으시고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비대면 홍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소개되는 장기기증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면서, 사람들의 장기기증 참여를 격려하는 활동을 하며 500시간 동안 봉사하였습니다. 기증이 이루어진 기쁜 소식이 있을 땐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해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주 한 번 봉사활동 기관에서 주관하는 생방송 라디오에 참여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며, 스스로

장기기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예비 의료인으로서 장기기증 등록에 동참하였습니다. 현재는 봉사자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기존의 활동과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사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길을 내밀어, 행복을 전하는 간호사로 이바지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전달하며 행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친절간호사>

울산대학교병원에 지원한 동기는 병원의 핵심 가치인 우수성과 친절이 저의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헌신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본원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친절에 기반한 환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울산대학교병원의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저도 동참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간호사>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사 후 친절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간호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밝은 미소를 통해 환자분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며 가르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셋째, 환자분들에게 신뢰받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실천해나감으로써 천천히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